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MARCH 2015



KOREAN
FINE DINING
IN SEOUL

독일 로마네스크 건축 투어
나의 사적인 주치의
2015 SIHH에 가다


Breguet
Depuis 1775

GALLERY

editor 정승혜



The Encounter, 2012

비올라의 시간

타인도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예쁜데 나 자신은 오죽할까. 비디오 예술의 거장 빌 비올라(Bill Viola)는 '시간이란 현실적인 물질'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의 답을 유추해왔다. 작년 파리 그랑 팔레에서의 회고전 이후 열리는 이번 대규모 개인전은 그가 최근 2년간 작업한 7개의 주요 영상 작품과 이전의 주요 작품들로 구성됐다. 지난 40여 년간 비디오아트와 진화를 아우르며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과 경험을 탐구해온 빌 비올라.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만큼, 관람에도 시간과 사유가 필요할 듯.

location 국제갤러리 2관, 3관

date 3월 5일~5월 3일 **tel** 02-735-8449



Welcome!

절대, 지루할 틈 없는

싱가포르 출신의 허만 청(Heman Chong)은 미술가이자 작가다. 더블린에선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했고, 공상과학소설 <필립>을 공동 저술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 역시, 중년의 위기를 맞은 한 가상의 전시 공간을 의인화한 짧은 소설을 시작으로, 전시 공간의 공허함에 빛대 예술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가령,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Welcome'이란 현수막은, 관람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듯 관람객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또 한국 법률상 공공장소라면 항상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를, 다른 전시처럼 숨기지 않고 전시장 중앙에 배치하기도 했다. 제목처럼 지루할 틈 없는 전시다. **location** 아트선재센터 2층 **date** 2월 7일~3월 29일 **tel** 02-733-8945



강강술래

봄 활활

백은하 작가는 바스라지고 흩어지기 쉬운 꽃잎들을 말려 작업을 한다. 화려했던 한때를 보낸 꽃들은 그 쓸쓸한 색채와 위태한 결만으로 보는 이들을 각자의 감상에 빠지게 만든다. 작가는 이 꽃잎에 펜 드로잉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번엔 그녀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강강술래' 연작의 출발을 볼 수 있다. "강강술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묘한 춤이자 놀이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갈망하는 공동체의 원형도 그곳에 있지 않을까 싶어 항상 다뤄보고 싶던 소재였어요." 하늘하늘하고 나풀나풀한 사람들의 놀이가 막 시작됐다.

location 창성동 실험실

date 2월 27일~3월